



행사자료

건국 60년 기념 제2회 공증주간 선포식



■ ‘제2회 공증주간’ 행사 개요

- 대한공증협회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2008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2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후원: 매일경제신문)
- 이번 행사는 2007년 제1회 행사에 이어 공증제도의 활용이 선진계약문화 정착과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수단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진행
- 특히, 2008년 9월 22일(월) 11:00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승행 대한공증협회장, 문성우 법무부차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 등 법조계 주요인사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공증주간’ 선포식을 거행하고, 텔런트 이정길·유인영씨에 대해 명예공증인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

■ ‘제2회 공증주간’ 행사 배경

- 우리 사회는 호의에 기초한 사인간 금전 거래가 많은 반면, 증거를 남기는 법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사후적 법률분쟁이 양산되고 있음
- 공증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 기능 수행
- 이번 ‘제2회 공증주간’ 행사를 통해 사인간 거래시 증거를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를 조성하고, 공증제도의 활용이 곧 시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널리 홍보

■ ‘제2회 공증주간’ 행사 일시

- 2008년 9월 22일(월)~9월 26일(금)
※ 2007년 '제1회 공증주간' 행사는 2007년 7월에 진행되었으나, 제2회 행사부터는 공증인법 제정일(1961년 9월 23일)에 맞추어 진행

■ '제2회 공증주간' 행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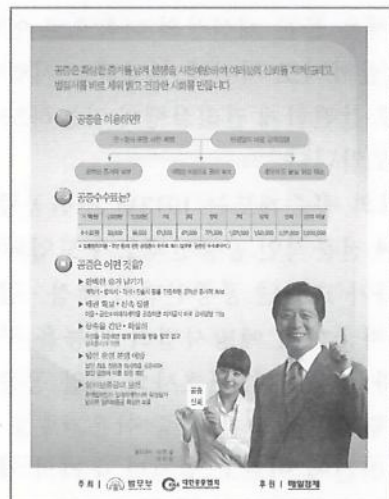
- 공증제도의 의미와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증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초점
- 공증주간 중 전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관련 무료 상담 실시
- 공증주간 홍보포스터 및 공증제도 일반을 소개하는 팸플릿 제작·무료배포
- 공증제도를 소개하는 강연·언론인터뷰 등 실시

■ '제2회 공증주간' 선포식 거행

- 일 시 : 공증주간 행사 첫날(9월 22일)
11:00 ~ 12:00
- 장 소 :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 주요 참석인사
노승행 대한공증협회장, 문성우 법무부 차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 텔런트 이정길, 유인영씨 등
- 선포식 주요 내용
 - 식전 공증강연회(강연자: 장재형 인하대 법대 교수) 시행
 - 텔런트 이정길, 유인영씨에 대해 명예 공증인 위촉장 수여(법무부장관) 및 홍

- 보대사 위촉패 수여(대한공증협회장)
- 유공 공증인(고재혁 변호, 정 영 공증인)에 대한 표창 수여
- 주요 인사들의 "공증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드릴 것을 서약"하는 족자 서명식 및 명예공증인의 "인증" 행사 거행

■ '제2회 공증주간' 포스터 및 팸플릿



■ 주요 인사 인사말

식 사(式 辭)

노 승 행
대한공증협회장

존경하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님과 문성우 법무부차관님,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님, 장용성 매일경제신문사 주필님, 그리고 전국의 공증 가족 여러분!

대한공증협회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국 60년 기념 제2회 공증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 개최의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증은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는 공적업무로서, 여러 가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인증 등은 민사상의 분쟁은 물론 재산상의 다툼으로 인한 고소, 고발까지도 사전에 예방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권리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공증제도는 1913년 조선공증령에 의하여 전문적인 공증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1961년 공증인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예방사법의 기능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으며, 변호사의 겸업 공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래 공증 이용건수도 연간 400여만건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공증제도가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에 대한 사회적 기초지식과 정보부족으로 국민의 실생활에서는 기대하는 것처럼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여 우리의 공증문화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레나 향약과 같은 농경사회문화의 역사적 기초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정(情) 문화는, 사인간의 각종 거래관계에서 아직까지도 거래시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거를 남기거나 각종 문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법문화, 특히 공증과 같은 제도에는 익숙치 아니하여 사후 법률분쟁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6백만 건으로 2006년 대비 7.6% 증가한 수치이고, 형사사건의 경우 본안사건이 10.7%, 약식명령사건이 17.4%, 민사사건의 경우 합의사건이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30년과 비교해 볼 때 매년 연 평균 13~14%씩 증가해 오고 있는 수치로,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인구 비율상 1심 기준 민사 본안 사건은 약 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당사자들에게도 재판과정에서 과도한 소송비용과 절차에 따른 시간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소송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사법의 안정화가 도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증이야말로 예방사법 분야에서 그 역할을 십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에 대한공증협회는 국민들에게 공증제도를 널리 알려드리고자 지난해 최초로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증주간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 같은 취지에서 오늘 그 두 번째 공증주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공증주간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활동과 더불어 공증에 관한 무료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증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좀더 쉽게 기초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구축해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2회 공증주간에는 텔런트 이정길 님과 유인영 님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명예공증인 겸 홍보대사의 위촉을 승낙하시고, 공증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위하여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의 모델로도 활동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공증협회는 공증제도가, 그 제도적 취지인 예방사법을 통하여 법질서가 바로서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증주간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증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도 정성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현재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공증인법 개정안은 우리 협회가 도입을 요청해 온 선진 공증제도인 선서인증제도를 포함하여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등이 예정되어 있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공증제도의 선진화와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더욱 정착되어야 할 주주총회 및 이

사회이사록 인증제도가 절차 간소화라는 이유만으로 폐지되려 함은 회사설립 및 회사 운영에 관련된 법적안정성과 분규예방 차원에서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한공증협회는 예방사법의 기능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동산등기원인증서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공증제도 도입, 공정증서를 통한 임의후견인제도의 도입,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범위를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대체물에 한정하지 않고 특정동산이나 토지·건물 등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증서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같은 내용이 공증인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같은 활동에는 협회 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관계 기관과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약속은 삶에 있어서의 지켜야 할 규약이며 당사자간의 신뢰의 기본입니다. 공증제도는 약속을 지켜 나가는 길잡이입니다.

공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분쟁이 사전에 방되고, 우리 모두 신뢰를 지켜 법질서가 바로 서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이룩되는 초석이 금번 공증주간을 통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공증주간에도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주신 법무부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공증주간 홍보후원을 해주신 매일경제신문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나라 공증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분들께

도 축하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激勵辭)

김 경 한
법무부장관

존경하는 노승행 대한공증협회 협회장님,
그리고 공증인 여러분!

오늘,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님과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님, 그리고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님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하신 가운데, 우리 법무부와 대한공증협회가 공동으로 건국 60년을 기념하여 제2회 공증주간 선포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사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공증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해오신 공증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공증제도의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하신 공로로 오늘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공증인 여러분!

1913년 조선공증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공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공증제도는 실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61년 공증인법이 제정될 당시에만 해도 공증인의 수가 전국에 1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전국에 공증사무소가 400개소,

처리건수 연 400만건, 그 가액은 7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공증제도가 단기간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성장은, 모두 공증인 여러분이 공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업무에 임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유교문화적 전통에 따라 호의에 기초한 사인간 거래가 많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계약문화에 익숙치 못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법률분쟁이 과도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법률문화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사고소 건수나 소송제기 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정작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는, 필요한 증거가 소실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가려지지 못하고 종결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약문화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법문화를 정착시켜 소송남발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작년부터 대한공증협회와 공동으로 공증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분쟁예방시스템인 공증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국민 실생활에 증거를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약속이 지켜지고 분쟁이 없는 사회, 그야말로 기본이 바로 선 기분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증인 여러분!

새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개월 간의 경험을 통하여 이 땅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에 한파가 몰아치고 경기가 침체되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에 의하여 한동안 법과 원칙이 손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법 경시 풍조와 법질서 파괴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 일류국가 진입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제라도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건국 6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법과 원칙의 일관된 집행으로, 신뢰사회의 구축이라는 사회적 자원을 착실하게 쌓아나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번 공증주간 행사를 통하여 공증이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지켜주는 제도로서 널리 알려지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공증제도가 실생활 속에 자리잡아, 우리 사회가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발붙일 틈이 없는 진실이 통하는 사회, 법치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증인 여러분!

지난 5월 법무부에서는 전자공증 등 선진 공증제도 도입을 위하여 공증인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증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증인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공증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공증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祝辭)

김 용 담

법원행정처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공증협회 노승행 협회장님과 협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국의 공증인 및 내외 귀빈 여러분! 법원행정처장 김용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법률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사법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온 대한공증협회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증제도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자, 작년의 ‘제1회 공증주간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제2회 공증주간 선포식’을 가지는 날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된 지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여서 오늘의 이 행사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처럼 소중한 자리에서 사법부를 대표하여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마련하시느라 애쓰신 대한공증협회 및 법무부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

1912년 조선민사령과 1913년 조선공증령에 의하여 전문적인 공증인제도가 도입된 이래 100년이 조금 못 되는 세월 동안, 공증제도가 우리의 법률문화를 한층 성숙시키고 ‘법의 지배’를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절차에서는 공정증서 등 공증인이 관여한 각종 서류들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거래를 함에 있어 공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거래방법이라는 인식이 점차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 땅에 공증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여 오신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증제도는 재판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증

제도는 예방적 사법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을 재판 단계까지 끌고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가능한 한 사전에 이를 예방하되, 사후적 해결이 불가피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만을 법원이 재판절차를 통해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종래 재판 단계까지 온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법률적 쟁점 없이 단순히 사실관계의 존부만을 다투는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법원이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재판제도가 가지는 한계와 증거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오해 등으로 인하여 처리결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사전에 공증인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면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사건들로서, 공증제도의 존재 의의는 그러한 사건들을 줄여나가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증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은 단순히 특정 분쟁을 방지한다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법부의 자원이 중요한 사건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의 질을 높이고, 사법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

우리 법원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잘함으로써 당사자들로 하여금 절차적으로나 결과적으로 납득하고 그 삶의 터전으로 조속

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 최선의 지혜를 모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한 이후 이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술 심리 및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도 결국 재판 잘하는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공증인 여러분의 지혜와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즉, 공증인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배양하여 법률관계 형성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간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매워 줌으로써 사전에 가능한 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을 제거하고,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거를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많은 법적 분쟁이 재판 이전 단계에서 해결되거나 재판 단계까지 오더라도 불필요한 사실관계 다툼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재판 단계까지 온 사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쟁점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결국 ‘재판 잘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고, 이것이 국민의 사법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법조문화의 토양을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시대 전체를 꿰뚫는 법의 정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끊임

없이 경계하고 성찰하면서, 법의 지배와 법률적 봉사의 확대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은 오늘의 이 선포식이 이 땅에 공증제도를 굳건히 뿌리내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표창의 영예를 누리시는 공증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공증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祝辭)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늘 건국 60주년 기념 제2회 공증주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증제도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와 비용을 통해 증거를 보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라 하더라도 실제적 진실에 부합한 결론을 조속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속의 법치(法治)를 실현시키는 유용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증제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기획된 공증주간이 지난 해 첫 시행된 이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오늘로서 제2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대한공증협회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의 신념과 노고가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고에 부응하여 공증제도의 편리함과 중요성을 체득하고 직접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호응 역시 점차 증대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건국 60주년 기념 제2회 공증주간에는 공증에 관한 무료 민원상담 및 홍보대사 위촉 등 보다 적극적인 대외적 홍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미시적으로는 우리사회의 효율적인 법률분쟁 해결의 초석이 되고 거시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사법의 이상 및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오늘의 행사를 주관하신 관계자 및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사(祝辭)

장 대 환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선진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 기쁩니다.

공증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게 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증업무에 매진해오신 공증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공증협회가 법무부와 매일경제가 함께 하는 법질서 캠페인 일환으로 공증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지 벌써 두 번째 행사를 맞았습니다.

공증은 아시다시피 선진계약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입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공증제도가 경제생활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계약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충분히 예방가능한 법률분쟁이 과도하게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비용은 사회가 고스란히 떠 안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신뢰,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증제도 정착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문화를 바꿔 신뢰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법질서 캠페인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선진계약문화 확립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뿐만 아니라 개방화 시대의 필수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행사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공증인 여러분이 나서주십시오. 매일경제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성장을 이뤄 선진국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공 공증인 표창 수상자 약력

○ 고재혁 변호사

(공증인가 세일합동법률사무소)

▷ 약 력

- 1953. . 제4회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 1953. 6. 제4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55. 9.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1960. . 상공부 서기관
- 1961. . 육군본부 법무관
- 1963. . 상공부 중소기업과 및 진흥과 과장
- 1964. 3. 변호사 개업(서울)
- 1975.12.~ 현재 공증인가 세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1976. .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
- 1979. . 대한변호사협회 총무 겸 사무총장
- 1982.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1990.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1993. 7.~1997. 7. 대한공증협회 재무이사
- 2001. 7.~2003. 7. 대한공증협회 협회장
- 1993. 7.~ 현재 대한공증협회 운영위원

▷ 공적사항

1. 1964년부터 현재까지 약 45년간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이사·법제이사·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인권보호활동과 국민의 무료법률상담, 민사분쟁예방에 진력을 다하는 등 한국의 변호사제도 위상을 드높여옴.
2. 1982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공증인가세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및 구성

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나라 예방사법분야인 공증업무 발전에 이바지해 옴.

3. 특히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공증협회 재무이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공증협회 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협회 발전과 공증사무소 회원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함.
4. 또한 공증인들의 업무지침서인 2004년도 공증실무를 편찬하면서 공증촉탁 절차 부분의 원고집필을 담당하여 회원들의 공증실무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
5. 공증협회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증업무 직역확대 및 공증수수료의 현실화, 업무개선 등을 위한 공증인법 개정 의견, 민법 중 재산법 관련 개정 의견 등 각종 관련 법령 개선사항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제시하여 왔음.
6. 현재는 1993년부터 대한공증협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협회의 대내외 활동에 관한 자문을 아끼지 않는 등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큼.

○ 정 영 공증인

(충남공증인합동사무소)

▷ 약 력

- 1964. 2. 경희대학교 법과대학2년 수료
- 1963. 6. 제1회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시험합격
- 1967.11. 제1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1968. 1.~1980. 2. 군 법무관 근무

- 1980. 3. 변호사 개업
(대전지방변호사회)
- 1981.12.~2004. 8.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
- 1983. 1.~2004. 8. 대전지방법원 민사, 가사,
조정위원
- 1983. 4.~1989. 4.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1983. 9.~1998.10. 대전세무서 국세세납
정리위원
- 1984. 2.~1999. 9. 대전문화방송 시청자위원
- 1984. 4.~1992. 4. 주부교실 충남(대전)지부
자문위원
- 1985. 1.~1987. 1.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 1987. 2.~1989. 2.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 1989. 1.~2004. 8.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1996. 4.~1997. 10. 충남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 1997. 8.~1998. 3. 방송위원 대전지역방송
자문위원
- 2001. 8.~2006. 5. 대능장학 문화재단 감사
- 2004. 8. ~ 현재 공증인
(충남공증인합동사무소)

▷ 공적사항

1.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등을 역임하면서 변호사의 직무인 인권의 보호와 법률문화 발전, 변호사 자정활동 등에도 솔선수범해 옴.
2. 1981년 12월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약 26년간 공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부단체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분쟁예방 및 간편·신속한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공증제도의 유용성과 활용방법을 널리 알리기에

힘써왔음.

3.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부적법 또는 불명확하게 무용한 공증, 새로운 분쟁이 유발될 개연성이 있는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증의 적법성과 실용성 확보에 노력함.
4. 특히 2004년부터는 변호사를 휴업하고 법무부로부터 공증인 임명을 받으면서부터는 공증인법에 따른 적법한 공증업무 처리는 물론 공증업무 활성화에 더욱 진력해 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인의 소임을 충실히 실행해 오고 있음.

■ 명예공증인 겸 홍보대사 약력

○ 텔런트 이정길

- 생년월일 : 1944년 10월 1일
- 학 력 : 서라벌대학 연극영화과
- 테 뷔 : 1965년 KBS 공채텔런트 5기
- 경 력 : 2001년 제1대 대한사회복지회
후원회 회장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조직
위원회 홍보위원
1995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
위원회 위원
- 수 상 : 1996년 SBS 연기대상 최우수
남자연기상 '행복의 시작'
1994년 대통령표창
1989년 대한민국방송대상 연기부문

1987년 MBC 제1회 이달의 연기자상

1982년 한국연극영화예술상

‘아상곡’

1978년 MBC 최우수 남자연기상

그 외 다수

□ 주요작품 : 내 인생의 황금기(MBC, 2008년)

난 네게 반했어(KBS, 2008년)

미우나 고우나(KBS, 2007년)

문희(MBC, 2007년)

하얀거탑(MBC, 2007년)

연개소문(SBS, 2006년)

제5공화국(MBC, 2005년)

2004 인간시장(SBS, 2004년)

그 외 달콤한 나의 도시, 부활, 김약국의 딸들, 수선화, 태양인 이제마, 아름다운 날들, 수선화, 봄비, 가을에 만난 남자, 새아씨, 청춘의 덧, 암행어사, 여명의 눈동자, 분노의 왕국 등 수백편의 드라마와 각종 CF 출연

그녀를 모르면 간첩(영화, 2004년)

그 외 삼성전자, LG텔레콤, 클린엔드클리어, 쌍용자동차, 미스터피자, SK텔레콤, 등 CF 다수

○ 탤런트 유인영(본명 유효민)

□ 생년월일 : 1984년 1월

□ 학 력 :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 소 속 사 : 모드니타운

□ 데 뷔 : 2004년 영화 ‘그녀를 모르면 간첩’

□ 경 력 : 춘사영화제 홍보대사

□ 수 상 : 2007년 KBS 연기대상 특집문학관 단막극상

□ 주요작품 : 기다리다 미쳐(영화, 2008년)

아버지와 마리와 나(영화, 2008년)

미우나 고우나(KBS, 2007년)

눈의 여왕(KBS, 2006년)

강적(영화, 2006년)

러브홀릭(KBS, 2005년)

오! 사라(KBS, 2005년)